

“칸막이 없는 자유로운 작품 배치…전시방식 신선”

광주비엔날레 개막…국내외 언론·평론가 반응

“어두운 분위기에서 영상작품만 배치한 2전시실이 인상이 깊네요.” “작품 배치 형식이 자유롭고 지역과 소통하는 작품이 눈에 띈다.” “스펙타클한 작품이 안보여 자칫 전시가 밋밋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 광주비엔날레’ 정식 개막(2일)에 하루 앞서 열린 프레스 오픈 행사에는 국내외 언론인, 미술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칸막이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배치한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고 영상 위주 작품이 출품된 2전시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이 나왔다.

전시장은 전반적으로 여백이 넘치는 분위기다. 2전시실을 제외한 1·3·4·5 전시실은 특별한 칸막이 없이 작품을 군데군데 설치해 한눈에 전시장이 보인다. 특별한 전열대 없이 바닥에 설치한 작품도 있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성의가 없거나 텅빈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전시를 담당하는 브리짓 딜라니 기자는 전반적인 전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올해 처음 외봤는데 전시관 규모와 작품 배치 방식이 신선했다”며 “특히 곳곳에서 보이는 미디어 작품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예술잡지 ‘더치 프라이스’ 소속 안 후씨는 “광주비엔날레는 해가 지날수록 베니스 등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를 소재로 한 ‘광주 락’ 작품 등 지역과 소통하는 작업이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뉴욕 옵저버의 젤다 보엔 기자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젤다 보엔 기자는 “규모가 큰 광주비엔날레에 소규모 작품들이 배치돼 시원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며 “아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4번째 광주비엔날레를 참여했다는 루벤 키한 호주 퀸즈랜드 아트갤러리 큐레이터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 그는 “감독의 의도라서 부정적으로 평가는

지역 소통·미디어 작품 인상적

여백 살린 관람방식 새롭게 제시

스펙타클한 작품 부재 아쉬워

못하지만 칸막이 없이 영상작품을 설치한 2전시실은 소리가 섞여 작품간 자율성이 보장안됐다”며 “전시방식은 신선했다. 소규모 작품이 큰 공간에 녹아들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도 신선했다는 반응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술평론가 반이정씨는 “올해는 예전 비엔날레에 비해 처음보는 작가들이 많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선명하지 않은 주제를 제각기 해석한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내놓으며 방향을 잃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곳곳에 작품을 설치하며 전시 스케일이 더욱 커졌다”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 작품을 감상해야하는 새로운 관람 방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창 화백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최 화백은 “우리같은 추상화가들도 비엔날레 작품은 작가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까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작가명과 전시 타이틀만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취재진 사이에서는 스펙타클한 작품 부재와 등성등성 놓인 작품 배치가 밋밋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리아 린드 감독은 “올해 비엔날레는 1년간 ‘월례회’ 등 협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으로 전시장을 확장했다”며 “소규모 작품으로도 내면의 스펙타클을 이뤄낼 수 있는 전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맨 오른쪽)와 양향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 국민의당 송기석(왼쪽 두번째) 국회의원들이 1일 오후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찾은 더민주 신임 지도부 비엔날레 개막식 총집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1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이다.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이후 다섯 만에 호남행 열차에 몸을 싣는 것은 야권의 지역적 텃밭인 호남을 챙기고, 광주가 당의 지지를 견인할 교두보라는 추 대표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박 2일 일정으로 하룻밤을 묵고,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여는 것 역시 추 대표의 호남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호남에서의 지지를 하라 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추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 끊임없는 구애를 보냈고, 당 대표가 되면 호남특위 위원장을 맡고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이 지역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추 대표와 신임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뒤 2일에는 민주화의 성지이자 야권의 상징인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다. 그 직후 민주묘역 민주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더민주가 야권의 적통임을 부각할 방침이다.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호남의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길 바라는 당 지도부의 희망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는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천정배 전 공동대표, 김경진·송기석 의원이 참석했다. 반면, 이청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안철수, 지난 주말 손학규와 비밀회동

강진 토담집 찾아…“미래에 대한 걱정 나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난달 28일 회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 시기가 안 전 대표가 광주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다진 직후고 국민의당이 제3세력 결집을 강조했던 시점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무등산 등반과 나주에서 강연을 한 뒤 손 전 대표가 집거 중인 강진 토담집을 찾았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은 차를 마신 뒤, 강진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배석자 없이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안 전 대표는 1일 정치국회 개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전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 “여러 현안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걱정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

고 말했다. 또, 손 전 고문의 캐치 프레이즈였던 ‘저녁이 있는 삶’과 안 전 대표가 강조하는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손 전 고문의 정치채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전반적인 말씀을 나눴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안 전 대표의 방문 전날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진에서 2시간 30분 동안 손 전 고문을 만나 “국민의당에서 안 전 대표와 경선을 통해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직접 영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최고 사령탑과 유력한 대선주자가 연이어 ‘러브콜’을 보낸 셈이어서 정계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손 전 고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주목되고 있다.

더민주 추미애-김종인 ‘화해 모드’

신·구 지도부 조찬회동

추 “많은 지도편달 해달라”

김 “대선까지 잘 이끌어주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김종인 비대위’ 멤버들이 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신임 지도부와 전임 지도부의 의례적 만남이었지만 ‘구원(舊園)’으로 얹힌 추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정치적 화해’로 해석할 수도 있어 관심을 모았다.

추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 ‘김종인 책임론’을 제기했고 김 전 대표가 정면 반박하며 장외에서 충돌한 바 있다.

하지만, 추 대표가 당선된 다음날인 지난 28일 김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잘 모시겠다”고 화해 제스처를 보냈으며 대변인으로 김 전 대표 시절 공천한 ‘비례대표 1번’ 박경미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조찬에서 “비대위가 있음으로 해서 4·13 총선을 안정감 있게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총선 직후에도 여러 논란 없이 당을 잘 이끌어주

셔서 정말 감사하다. 전대까지 당을 뒷받침해줘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달리기 한다는 자세로 하겠다. 잘 다져놓은 것을 바통 이어받아 지지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집권의 희망 가질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집권을 향한 단일한 목표 속에 김 전 대표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자세를 닦았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선거를 여러번 치러봐서 잘 알겠지만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 현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에게 초지일관 이끌어간다는 인상을 분명히 해주는 게 좋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이끌어면 대선까지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 다. 이제 세 지도부가 잘 끌고 가야지…”라고 말했다.

